

의사학적으로 살펴본 『救急方』

정순덕, 김남일, 차웅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tudy of 救急方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Jung Soon Duk, Kim Nam Il, Wung-Seok Cha*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救急醫學 was initiated with the emergence of mankind. 救急方 was written in the federal government and published in the state government taking orders from 世祖 to meet various needs; stabilization of public welfare, reinforcement of the royal authority, a need for a book for common use in the medical field, as well as pure interest in medicine coming from the king himself. 救急 includes not only emergencies but also rapid transitions of diseases encountered in everyday life. 救急方 succeeds the tradition of 鄉藥救急方 in that it helps anyone to appropriately treat emergencies. 救急簡易方, 救急易解方, and 諺解救急方 of later generations all were directly influenced by 救急方 and carried on the tradition of 救急.

keywo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hosun dynasty, 救急醫學, 救急方

I. 서론

구급의학은 인류가 존재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주술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간단한 물리요법, 약물요법, 침구요법 등을 사용하다가 경험이 점점 누적되고,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하고 정교한 치료법들이 사용되게 되었다. 구급이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급한것을 구한다’는 뜻으로 ‘급한 것’이란 건강한 상태가 아닌 병이든 상황을 의미한다. 조선전기까지만해도 ‘병든것을 구한다’는 ‘구급’이라는 용어가 조선후기로 넘어가면서 ‘응급한 것

을 구한다’는 뜻의 전문적인 뜻으로 변화하게 된다. 조선전기까지 구급의서들은 일상에서 많이 볼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 관에서 편찬하고, 연해를 단 일만의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던 것이 조선중기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의서들의 개인소장과 편찬이 많아지면서 다른 의서들과 마찬가지로 관에서 구급의서들을 따로 편찬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구급의서들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필사해서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선중기이후는 종합의서들이 많이 출간되면서 구급의서들은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의서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구급의학의 내용들은 우리 실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민간요법으로 뿌리깊게 남아있으며, 의료현장에서 빠

*차웅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2-961-0672

E-mail : chawung@gmail.com

른 처치와 단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환자들이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救急方』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국어학이나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조선전기의 국어사를 알아 볼 수 있었다²⁾.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救急方』의 醫史學的인 측면을 드러낼 수 없었으므로 오늘날 우리 救急醫學의 한 뿌리가 되는 『救急方』을 醫史學的 시각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救急方』의 의사학적 연구를 통하여 『救急方』이 구급의학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 필자는 『救急方』의 형성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기존 의서들과 비교하여 각 의서들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救急方』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救急方』이 편찬되게 된 조선전기의 의료상황을 알아보고, 둘째 『救急方』을 분석하여 『救急方』의 서지사항, 형태적 특징, 救急의 범위, 救急치료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셋째 『救急方』 간행전후의 의서들을 비교 검토하여 『救急方』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救急方』의 연구가 향후 한국구급의학사를 서술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II. 본론

1. 『救急方』의 저술배경

1) 조선전기의 민생안정

조선의 건국이념인 유교의 애민정치사상과 호생의 덕에 입각하여 백성들의 생명을 구제하고자 조선의 건국세력들은 보건사업에 관한 관심을 일정하게 표명하였다. 조선초기에 태종, 태조, 세종, 세조 등이 직접 의학책을 읽고 의약에 관한 관심을

지닌 것은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애민정치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여 인명을 구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의학을 중시하였던 조선은 의료제도의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 의학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중앙의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등의 삼의사가 있었고 제생원, 활인서 등의 특수 기구가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의학을 중시하는 정책은 『鄕藥集成方』, 『醫方類聚』, 『救急方』, 『瘡疹集』 등 의서의 편찬으로 나타난다.

2) 세조의 의학에 대한 관심

세조는 선조들의 의학을 중시하는 정책을 이어받고, 또한 본인도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자신도 醫方에 소통하여 약을 쓸 때에는 의관들에게 맡기지 않았고, 궁내에서도 늘 의서를 강의³⁾케 하였으며, 세조 9년 12월에는 본인이 『醫藥論』⁴⁾을 지어 임원준에게 주해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았으며 의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세조는 세종의 유지를 이어 『醫方類聚』의 교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2차교정본까지 만들어내게 되었다. 또한 『醫方類聚』가 너무 방대하여 의가에서 상비할 수 없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의해 세종대와는 다른 『救急方』과 『瘡疹集』 등을 간행하게 되었다.

3) 의가에서 상비할 수 있는 책의 필요성 대두

세조 4년(1458) 4월 6일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종 대왕 조(世宗大王朝)에 찬술(撰述)한 『醫方類抄』는 제방(諸方)이 비재(備載)하였지만, 그러나 권질(卷秩)이 호양(浩穰)하여 줄지에 간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간요(簡要)한 방서(方書)를 가지고 분

3) 世祖 37卷, 11年(1465) 11月 27日 ○傳于禮曹曰: “醫員所讀醫書, 依儒生例, 每月朔望親講.”

4)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35장, 세조 31권, 9년(1463) 12월 27일: 『의약론』을 지어 임원준에게 주해를 내게 하고, 인쇄 반포하게 하다. 약을 쓰는 방법과 8종의 의원들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2) 논문으로는 ①南星祐, 『救急方診解』와 『救急簡易方』의 翻譯 ②김남경, 『救急方』류 언해서의 국어학적 연구 ③元順玉, 救急方診解의 語彙 研究 ④南星祐, 『救急方診解』와 『救急簡易方』의 同義語 研究 등이 있다.

문 강습(分門講習)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⁵⁾는 기록이 있다.

조선전기에는 『鄕藥集成方』과 『醫方類聚』가 집대성되고 간행된 시기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임상에서 일일이 그 방대한 책들을 일일이 참고하여 사용할 수는 없었다. 아니 너무 방대하여 국가에서만 소장할뿐 개인소장이란 거의 불가능 하였다. 그리하여 방대한 의서의 내용중 임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瘡疹集』, 『救急方』 등 의서들이 대거 출간되었던 것이다.

2. 『救急方』의 서지학적 고찰

1) 『救急方』의 편찬연대

『救急方』은 세종대 『救急方』, 세조대의 『救急方』, 허준의 『諺解救急方』, 하당 권두인⁶⁾의 『救急方』⁷⁾등의 간행사실이 전해지는데, 여러 가지 異本이 전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조대 『救急方』을 연구주제로 한다.

현재 완질로 존재하고 있는 봉좌문고본 『救急方』 책속 어디에도 저자와 편찬연도등 간행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다른 문헌들에도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다. 현존 봉좌문고본 『救急方』에 대한 기록은 실록과 다른 서적들의 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조실록에서는 세조 12년(1466년) 6월 13일 '8도에 『救急方』을 각 2件씩 하사하다⁸⁾라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성종실록에서는 성종 10년(1479년) 2월 13일 '병조 참판(兵

曹參判) 김순명(金順命) 이 아뢰기를, “세조(世祖朝)에 『救急方』을 찬집(撰集)하였으나-하략⁹⁾”라는 대목이 보인다. 또한 『攷事撮要』에 『救急方』이 평양판과 청주판이 있으며 세조명찬이라고 되어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세조대에 『救急方』을 찬집했으며, 적어도 1466년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조 4년(1458년) 4월 6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종 대왕 조(世宗大王朝)에 찬술(撰述)한 『醫方類抄』는 제방(諸方)을 비재(備載)하였지만, 권질(卷秩)이 호양(浩穰)하여 줄지에 간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간요(簡要)한 방서(方書)를 가지고 분문강습(分門講習)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⁰⁾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간요한 방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救急方』과 『瘡疹集』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瘡疹集』은 세조3년(1457년)에 간행되었으며, 『救急方』도 이즈음에 간행되었을 것이다.

『救急方』을 초판 인쇄할 때 인쇄를 같이 찍어야하므로 이미 을해자병용 금속활자¹¹⁾가 만들어져 있어야하고, 조선전기의 의료상황상 구급의서를 지방에 빨리 보급해야하므로 『救急方』의 초판 인쇄는 을해자병용 금속활자로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救急方』은 을해자가 나온 세조1년 1455년 이후에서 1458년 이전에 초판 간행되었을 것이다.

2) 『救急方』의 저자

현재 『救急方』의 저자는 어디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추론해 보고자 한다.

5) 『세조실록』(3) 「제12권」.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290. 禮曹啓: “世宗大王 朝所撰 『醫方類抄』 備載諸方, 但卷秩浩穰, 卒難刊行, 姑將簡要方書分門講習.” 從之

6) 두산백과사전. 권두인 [權斗寅, 1643~1719]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 안동. 자 춘경(春卿). 호 하당(荷塘)·설창(雪窓). 35세에 비로소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심했으며, 학행(學行)으로 효릉참봉(孝陵參奉)이 되었다. 그 뒤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사어(司禦)를 거쳐 공조좌랑이 되고 사직하였다. 안동의 동백서원(東柏書院)에 배향되었다.

7) 荷塘先生文集卷之七에 ‘考閱諸方. 哀爲一帙. 名曰救急方.’라는 『救急方』을 저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8)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12장 A면. 壬子/賜八道救急方各二件

9) 【태백산사고본】 16책 101권 6장 A면. 庚子/受常參, 視事. 兵曹參判 金順命 啓曰: “世祖 朝, 嘗撰 《救急方》 -하략”

10) 【태백산사고본】 5책 12권 8장 B면. 禮曹啓: “世宗大王 朝所撰 《醫方類抄》 備載諸方, 但卷秩浩穰, 卒難刊行, 姑將簡要方書分門講習.” 從之

11) 을해자는 1455년(세조1년)에 만든 금속활자이며, 을해자병용 한글활자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록은 없지만 을해자를 만든 1455년과 능엄경언해를 인쇄한 1461 사이에 주조되었을 것이다.

1. 『救急方』은 『醫方類聚』와 비교분석해보니 (본 논문의 후반부에 비교분석해 두었다) 『救急方』의 내용은 『醫方類聚』에 모두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醫方類聚』의 교정자와 『救急方』의 편찬자와 일치할 가능성이 많다.

『醫方類聚』의 교정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는 양성지와 임원준이 있다. 전자는 서적 편찬과 관련한 「書籍十事」(1466)등 여러 차례의 奏議를 통해 관찬서의 간행과 도서 수장의 중요성을 피력했으며, 자신 또한 여러 가지 서적의 교정 및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다. 또 임원준은 의술로 등용되고 세조의 신임으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간 인물이었으며, 그 또한 세조가 親撰한 『醫藥論』을 주해하여 인쇄 반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두 사람 모두 의약과 서적 편찬에 밝고 선대부터 활동한 인물들인지라 선왕인 세종의 유업을 계승하여 『醫方類聚』를 교정 하는 데는 적임자로 선정되었을 것이다¹²⁾.

2. 『救急方』은 『醫方類聚』를 교정하는 가운데 편찬된 간요한 방서이다. 이때에 『瘡疹集』도 같이 편찬되었는데 『瘡疹集』의 서문에 보면 이미 세종대에 『瘡疹集』의 모본이 있었으며¹³⁾, 세조3년 1457년 왕명으로 세종대 『瘡疹集』이 미비한 점이 있으니 임원준과 이극감이 더하고 뺐다¹⁴⁾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 『救急方』도 세종대에 이미 모본이 있었다.

3. 『救急簡易方』은 내의원에서 편찬하여 성종께 올린 의서인데, 내의원 제조 윤호, 임원준 등이 지은 것이다. 본 논문의 후반부에 『救急簡易方』과 『救急方』의 비교분석해 두었는데, 『救急簡易方』은 『救急方』과 목차뿐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救急簡易方』의 저자와 『救急方』의 저자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4. 『東醫寶鑑』 편찬의 과정에서 허준은 임상에서 편이하게 쓸수 있게끔 『診解救急方』과 『診解痘瘡集要』를 편찬하게 된다.

이 는 『醫方類聚』의 교정 과정에서 임상에서 편이 사용할 수 있게끔 『救急方』과 『瘡疹集』이 나온 것과 유사한 예이다.

1,2,3,4의 사실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 『救急方』의 저자는 『醫方類聚』를 교정할 때 참여했고, 『救急簡易方』을 지었고, 『瘡疹集』을 편찬한 임원준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救急方』의 판본

『救急方』은 세조 4년-12년(1458-1466년) 사이에 을해자¹⁵⁾로 상하2책으로 간행되었다. 흔히 『救急方診解』라고 부르나 이책의 내제(內題)는 『救急方』이다. 원간본은 금속활자인 을해자로 찍은 책이나 전하지 않고, 현재까지 알려진 판본은 중앙에서 먼저 간행한후, 지방에 널리 배포하도록 지역 별로 간행¹⁶⁾하여 다량 인출하게 한 목판본으로 된 번각본들이다.

『救急方』 2권2책은 의서로 의서 중에서도 응급조치를 취해야할 위급 환자들을 위한 구급의서이다.

그 완질은 일본 나고야 봉좌문고에 간수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낙질로서 상권 한책이 18장이나 낙장된 것이 서울대 가람문고에 있을 따름이다.

4) 『救急方』의 형태적 특징

(1) 한문원문에 바로 이어 언해가 되어 있다.

한글창제 이후부터 개화기 이전에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을 보통 언해라 불렀는데, 조선전기에는 한글 창제의 시험검, 한글의 확대검해서 중앙

12)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13) 世宗大王以天縱之聖好生之德合乎天地嘗命內醫搜摭諸方凡屬瘡疹者合爲一帙名曰瘡疹集印頒中外

14) 我殿下特留宸慮清讜之間取閱此書而病其未備遂元潛及吏曹參議臣李克構傳之刪

15) 두산백과사전, 1455년(세조 1)에 명필가 강희안(姜希顔)의 진체(晉體)에 가까운 글자를 자본(字本)으로 해서 주조하였다. 뒷면은 평평하고 모양은 직육면체에 가깝다. 이 활자는 대(1.6×2.0cm)·중(1.2×1.5cm)·소(1.0×0.7cm)의 세 종류로 만들어 《능엄경언해(楞嚴經診解)》 《남화진경대문구결(南華眞經大文口訣)》 등 150여 종에 이르는 책을 찍어내었다.

16) 1554년 어숙권의 고사촬요(攷事撮要)에 의하면, 청주와 평양조에 『救急方』이 간행되어 있었다고 나타난다.

에서만 인해서가 간행되었다.

이러한 언해의 확대는 한글을 보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번역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상과 학문의 발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유교경전, 불교서, 교화서, 기술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언해가 이루어 졌다.¹⁷⁾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救急醫書나 産書, 瘡疹集류의 의학서적의 언해가 이루어 졌다.

당시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하였던 의학적인 내용이 漢文으로 기록되어 있어 한문을 아는 儒醫들만 구급의료를 행할수 있던 것을, 중앙에서는 醫書의 언해를 통해 儒醫뿐만 아니라 의녀들과 지방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地域醫士들도 구급의학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救急方』은 지방 곳곳으로 보내어져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글의 보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각지방에서 女醫 70인을 뽑아 혜민서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고, 성재한 의녀들은 지방으로 돌려보냈으므로¹⁸⁾ 의녀들을 통한 구급의료의 시행뿐만 아니라 한글의 교육¹⁹⁾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2) 인용문헌을 밝히고 있다.

『救急方』의 구급서적중에서 『救急簡易方』과 더불어 유일하게 인용문헌을 첫머리에 밝히고 있는 책이다. 『救急方』 이전의 『鄉藥救急方』이나 『救急方』 이후의 구급서적들에서는 구급의학의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용서적은 생략하고 있다.

『救急方』에서는 왜 첫머리에 반드시 인용문헌을 밝히고 있을까? 이는 조선초기 세종이나 세조, 성종등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구료하는데뿐만 아니라 조선초기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온힘을 기

울였다. 인용문헌은 의학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판단하여 우리의 치료법을 인용문헌을 통해 표현할지라도 의학의 정통성과 신뢰성을 겸비하기 위하여 인용문헌을 표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

향후 救急醫書의 목적은 알아보기 쉽고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용의 명확성보다는 내용의 간결성이 중시된다. 따라서 조선이 안정된 이후에 편찬된 구급의서들은 인용문헌의 표기보다는 해당구급상황의 간략한 증상을 적은 후 즉석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처치를 적은 후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을 적고 침구치료를 할수 있는 혈자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인용문헌을 이용하여 증상이나 치료법등을 기술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문헌을 참고로하여 증상과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인용문헌을 기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헌에는 『聖惠方』, 『千金方』, 『經驗良方』, 『鄉藥救急方』, 『延年方』, 『婦人良方』, 『産書』 등으로 수나라때부터 명나라까지 골고루 있으며, 고려와 조선의 고유 향약의서가 골고루 채록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3) 『救急方』의 형식

『救急方』은 기본적으로 인용문헌 - 증상 - 간단한 치료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되어 나온 인용문헌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는 다시 적지 않았다.

『救急方』의 전권에 걸쳐 공통된 기본 형식은 인용문헌을 적고, 인용문헌에 따라 간략한 증상을 적은 후 즉석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처치, 단방약, 처방약, 침구치료를 할수 있는 혈자리, 예후, 원인, 기타 치료법(熨法, 方術 등)등이 순서에 상관없이 거론되고 있다.

3. 『救急方』의 내용연구 및 諸書의 상호관계

1) 『救急方』의 내용연구

17) 安秉禧, 諺解의 史的 考察, pp.7-26
 18) 『경국대전』 권3 禮典 選上조 “女醫七十人 每三年 並以諸邑婢年少者選上 女醫則成才後還本邑
 19)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12월 1일(정사) 3번째기사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4장 A면 ○상략 書則醫女訓之 하략.”

(1) 『救急方』을 통해서 본 구급의학의 범위

① 구급의 외형적 범위

『救急方』은 상권의 19개, 하권의 17개의 병증을 합하여 36개의 병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救急方』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救急方』上

中風, 中寒, 中暑, 中氣, 中忤中惡鬼氣, 鬼魘鬼打, 卒死, 卒心痛, 霍亂吐瀉, 尸厥, 纏喉風喉閉, 骨鯁, 脫陽陰縮, 吐血下血, 大小便不通, 溺水, 自縊, 失欠領車蹉候, 金瘡

◎ 『救急方』하下

箭鏃金刀入肉及骨不出, 湯火傷, 馬咬馬踏馬汗馬骨馬踢, 打撲傷損, 眯目, 諸蟲入耳, 菜毒, 菌毒, 砒霜毒, 魚肉毒, 虎咬, 獠犬毒, 諸蟲傷, 孕婦逆生難產, 胎衣不下惡血湊心, 血暈

위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救急方』의 구급의 범위는 일상생활에서의 위급상황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다. 『救急方』에서는 다른 구급의 서들에서 보이는 피부질환(창양(瘡瘍), 용지(癰疽)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瘡疹集』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② 구급의 내용적 범위

본서를 분석하여 구급상황이란 어떤 상황이며 어떠한 범위를 포함하는지 알아보았다.

‘鬼魘鬼打’條에 ‘須與不救則死’이라는 구절은 구급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구급상황은 모름지기 잠깐 사이에 구하지 않으면 죽게되는 상황이다.

구급의 외형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를 정리해 보면 구급의학은 일상에서 갑자기, 또는 위중한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되는 상황이나, 통증이 극심한 상황이나, 해당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남게 되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救急方』을 통해서 본 구급처치의 자신감

구급상황시 한시라도 지체 말고 바로 치료를 해야 조금이라도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救急方』에서는 구급처치의 자신감을 「霍亂吐瀉門」의 ‘已試數百人皆灸畢即起坐驗’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3) 『救急方』을 통해서 본 제대로 된 구급처치의 중요성

「中寒門」의 ‘凍死하러는데에 심장을 먼저 따뜻하게 하지 않고, 갑자기 몸을 火灸하게 되면 냉기와 화가 서로 부딪힘이 급하니 살릴수 없게 된다²⁰⁾’고 하였고, 처치뿐 아니라 약물을 사용하는데 있었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中氣門」의 ‘不可妄投’는 이를 잘 표현한 구절이라 할 수 있다.

(4) 『救急方』을 통해서 본 예후의 판단과 구급치료

구급처치후 특이한 징후가 나타날 경우 나타난 징후를 보고 살수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였다. 또한 처치후에 나타난 증상을 보고 치료의 종료시점을 잡는다든지, 하던 치료를 중단하던지 하였다.

또한 몸의 변화가 생긴 것을 보고서 치료 종료시점을 잡기도 하였고, 變症이 생기게 되면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였다.

(5) 『救急方』을 통해서 본 구급치료의 순서

여러 가지 구급처리를 하게 될 경우 순서에 따라 치료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경우의 순서를 기재하고 있다.

(6) 『救急方』에서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사용

20) 凍死方 以大器中多熬灰使煖囊盛以搏[搏]其心冷即更易心煖氣通目轉則口乃亦開可與溫酒服粥清稍稍熾之即活 若不先溫其心 便將火灸其身 冷氣與火相搏急 即不活也

살아가면서 위급상황은 언제 어느때고 발생할수 있다. 구급처치는 즉석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급처치 재료들을 바로 구할수 있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치료방법과 약재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바로 구할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위급상황을 타개해 나갈수 있게끔 배려한 것이다.

(7) 『救急方』을 통해서 본 구급치료법

救急治療法에는 첫째 內服法과 外用法을 포함하는 藥物治療와, 둘째 單純鍼法, 鍼刺出血法, 鍼刺破法, 搯刺法을 포함하는 鍼治療와, 셋째 間接灸法과 直接灸法을 포함하는 灸治療가 있으며 넷째 縫合法, 整復法, 副木法, 導尿法 등을 포함하는 外科的治療와 다섯째로 찜질하는법, 물리요법등이 있고 여섯째로 方術法 등 기타 治療法이 있다. 이들 治療法의 공통점은 바로 즉석에서, 또는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는 治療法들이다.

2) 『救急方』과 諸書의 상호관계

『救急方』의 출간 전후에 많은 의서들이 간행되었다. 그중 『救急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서들을 중심으로 하여 관계를 알아보았다.

(1) 『鄉約救急方』과의 관계

『鄉藥救急方』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醫書)이면서, 현존하는 구급의서로서 첫출발이다. 『救急方』에 『鄉約救急方』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鄉藥救急方』과 『救急方』을 비교 분석해보니, 같은 문의 경우 완전히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유사한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는 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거의 유사한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救急方』은 『鄉藥救急方』보다 더 다양하게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救急方』에서 『鄉藥救急方』을 직접 인용문헌으로 사용하여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조선 초기의 『救急方』은 고려시대의 『鄉藥救急方』을 계승발전하여 편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2) 세종대의 『救急方』과의 관계

현재 세종대의 『救急方』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廣濟秘笈』의 引據題書에 보면 ‘救急方 世宗朝命撰’으로 되어있다.

『廣濟秘笈』의 인용서목에 나온 『救急方』이 세조조명찬을 잘못 표기한 것인지, 세종대에 출간한 『救急方』이 따로 있는지 『廣濟秘笈』에 인용된 『救急方』의 내용을 세종대의 『救急方』으로 보고 본 논문의 의서인 세조대의 『救急方』과 비교해보았다.

『廣濟秘笈』은 총4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구급에 대한 내용이 제1편에 나온다. 1편에서 세종대 『救急方』의 인용은 5건이 존재한다.

1. 【砒礪】상략 又菘[綠]豆作粥冷服 救急 이라고 되어있으나 세조대 『救急方』에는 없다.

2. 【夏月】상략 鷄肉遺蜈蚣毒中則悶亂張口昏塞舌脹出血生栗嚼汁灌入此外無他藥 救急 이라고 되어있으나 세조대 『救急方』에는 없다.

3. 【冬月】溺水凍死解去濕衣即將生人熱衣包裹籠中熱灰盛袋熨其胸腹冷則易之令徹煖氣以干湯或溫粥小許灌之即活勿爲太烘即死 救急 이라고 되어 있고

『救急方』에는 凍死 聖惠方治凍死方以大器中多熬灰使煖囊盛以搏[搏]其心冷即更易心煖氣通目轉則口乃亦開可與溫酒服粥清稍稍嚙之即活若不先溫其心便將火炙其身冷氣與火相搏急即不活也. 本朝經驗粥飲醬湯爲上飲酒次之 粥 으로 『廣濟秘笈』에서 인용한 세조대 『救急方』과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나 세조대의 『救急方』에서 인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目盲】상략 沙石諸物大風飛揚入目疼痛不關牛筋搥如絲細嚼入眼中昧物着出 救急 이라고 되어 있으나 세조대 『救急方』에는 牛筋을 쓰는 처방은 없고 같은 맥락에서 鹿筋이나 猪筋을 사용하고 있다.

5. 【蛇入】 상략 舌蹇語吃川椒生麪包作丸每十立醋湯下 救急 이라고 되어있으나 세조대 『救急方』에는 없다.

위의 5건을 비교분석해 보았을 때 『廣濟秘笈』에서 인용한 세조대 『救急方』은 세조대의 『救急方』과 전혀 다른 책임이 확실하다. 인용된 부분이 5건밖에 안 되지만 구급질환은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치료하는 방법도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醫方類聚』와의 관계

『醫方類聚』(醫方類聚)는 조선 세종 때부터 시작하여 성종때까지 교정과 간행을 한 대규모 종합 의서이다.

『救急方』이 『醫方類聚』의 교정중에 유초(類秒)하는 작업의 소산인 전문적인 2차의서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醫方類聚』의 「中惡門」과 『救急方』의 해당부분을 비교검토해보았다.

『醫方類聚』의 「中惡門」은 『醫方類聚』의 160권 중간부터 161권 중간정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附諸尸 諸疰 厥 鬼邪鬼擊卒 屨卒忤卒死 가 같이 붙어있다. 이것은 『救急方』에서는 「中忤中惡鬼氣」, 「鬼屨鬼打」, 「卒死」, 「尸厥」에 해당하게 된다.

『醫方類聚』와 『救急方』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醫方類聚』는 『救急方』보다 더 다양한 책들을 인용하고 있으며, 증상, 치료, 식치, 금기, 침구, 도인 문을 각각 따로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각각의 인용서적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다. 『救急方』은 몇 개의 인용서적을 빌려서 간단한 증상과 처치법들을 인용서적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救急方』에서는 증상과 치료만 나올 뿐 『醫方類聚』의 식치, 금기, 도인 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위급한 경우에 사용되는 구급의서가 일반적으로 증상과 치료 위주로 적어놓기 때문이다.

인용문헌을 분석해 보면 『醫方類聚』의 인용문

헌이 더 많고 다양하지만, 『救急方』의 인용문헌들 중에서도 『醫方類聚』에 인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으니 『備急大全良方』이다. 『葛氏備急方』은 『肘后方』과 같은 책이므로 다른 서적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인용문헌으로 하고 있는 『經驗良方』, 『聖惠方』, 『千金方』, 『葛氏備急方』, 『衛生易簡方』, 『壽域神方』, 『肘后方』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救急方』의 내용은 『醫方類聚』에 모두 다 있으며, 거의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인용문헌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醫方類聚』에서 순서상 먼저 인용한 인용문헌이 있게되면 거기에 한꺼번에 인용하고 있다. 또한 『救急方』에만 인용문헌으로 등장하고 『醫方類聚』에는 없는 『備急大全良方』의 경우는 글자는 약간 다르지만 『三因方』의 내용과 일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볼때 『救急方』과 『醫方類聚』는 같은 판본의 인용문헌을 보고 편찬했다고 추정할 수있으며, 『醫方類聚』의 편찬자와 『救急方』의 편찬자는 동일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救急方』은 『醫方類聚』의 호변함으로 인해 실용성이 떨어지고 의가에서 상비할수 없으므로, 의가에 상비할수 있는 의서로 간요하게 임상에서 바로 쓰일수 있게끔 『醫方類聚』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의서임을 알 수 있다.

4) 『救急簡易方』과의 관계

허중(許琮)의 『救急簡易方』 서문에, ‘이 책 이전에 급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醫方類聚』를 근간으로 더하고 빼서 새로이 편찬한 『鄉約濟生方』, 『救急方』 등이 있었으나 취사(取捨)가 정밀하지 못하고 상략(詳略)이 적당하지 못하여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²¹⁾’고 하고 있다. 성종은 즉

21) 『救急簡易方』 서문: ‘상략··意醫術多所纂定醫方類聚 既集醫家之大成其刪煩舉要者則先有曰鄉藥濟生方曰救急方而或取舍未精詳略失當皆不適於中今上御極恩深字人思欲廣選約取以便民生醫病之用乃命領敦寧府事臣尹壕西河君臣任元濬工曹參判臣朴安性漢城府左尹臣權健暨臣琮率其僚屬搜括古方病取其要而以急爲先藥收其寡而以易爲務

위 후 『救急方』을 보완하여 민간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의서(醫書)의 편찬을 구상, 준비하였다가 성종 20년(1489)에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 임원준 등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여 이를 감수하고 또 한글로 언해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편찬하니 이책이 『救急簡易方』이다.

『救急簡易方』은 허종의 서문과 성종대의 기사를 토대로 보면 『救急簡易方』은 『救急方』을 보완하여 편찬한 책이라는 것이다. 『救急簡易方』은 『救急方』의 목차를 거의 대부분 포괄하고 있으며, 더구나 卷之一의 처음 부분은 『救急方』의 목차순과 완전일치하며 뒷 부분도 『救急方』의 목차순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救急簡易方』은 『救急方』의 목차를 더 세분화 시켜서 목차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救急簡易方』이 편찬되던 시기에 부인과 소아에 대한 구급 증상을 더욱 중히 여기게 되어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救急簡易方』과 『救急方』에서 대표적인 몇 개의 목차만을 가지고 비교해보니 유사한 치료법들도 여러군데서 발견된다. 그러나 당시 약재수급이 원활하여 복합처방약을 상용할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책으로 볼 수 있다.

5) 『救急易解方』과의 관계

권건(權健)의 발문에 『救急易解方』의 발간 경위가 약술되어 있는데 “…… 그간 이미 편찬한 『집성(集成)』, 『유취(類聚)』, 『구급방(救急方)』과 같은 책들이 있지만 너무 분량이 방대하여 실용에 적절치 않거나 너무 간략하여 빠진 것이 많거나 아니면 오직 국내산 약재만을 고집하여 모자람이 있다. 모두가 이 책처럼 넓게 수집한 다음 요지만을 거두어 압축하되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지적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救急易解方』은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등의 의서는 너무 허번하고 『救急方』은 지나치게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널리 諸方書를 참고하여 요약하여 하나의 구급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救急易解方』은 대부분 같은 제목의 목차가 많으며, 『救急方』의 순서대로 목차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지가 않음을 알 수 있다.

목차나 내용으로 분석해 보니 『救急簡易方』은 『救急方』의 목차순이나 목차명을 따르고 있어 구급의학에 대한 정신은 계승하였으며, 실제 치료면에 있어서도 당시의 약물이 풍부해지고 구하기가 쉬워져 복합처방이 많이 사용되는 의학계 상황을 반영하여 처방명이 있는 복합처방을 사용하면서도 『救急方』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諺解救急方』과의 관계

본인의 ‘『諺解救急方』 연구’라는 석사논문에서 『諺解救急方』과 『救急方』이 별개의 책이라는 것을 밝혀놓은 바 있다²²⁾. 본 논문에서는 책은 별개이지만, 『諺解救急方』과 『救急方』이 내용적으로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諺解救急方』은 대체적으로 『救急方』의 목차순서에 맞게 목차를 구성하고 있으며 질병의 유행양상에 따라서 『救急方』의 한가지 문을 여러개로 분리하기도 하고, 『救急方』의 여러 가지 문

22) 『諺解救急方』과 『救急方』이 간편한 내용으로 대중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두 책의 성격이 비슷하지만, 『諺解救急方』의 발문에서 『救急方』의 소실로 다시 救急方의 편찬을 명하였다는 점, 두책의 인용문헌을 살펴보았을때 『救急方』은 聖惠方, 經驗良方, 千金要方, 壽域神方, 經驗秘方, 得效方, 衛生簡易方, 肘後方, 直指方, 『葛氏備急方』, 聖濟總錄 등 24종의 의서를 인용하였으나 『諺解救急方』의 경우 本草, 丹心, 綱目, 得效, 入門, 正傳, 類聚, 直指, 經驗, 回春, 靈樞, 醫鑑, 山居 등 22종의 의서를 인용하였으니 인용문헌이 확연히 다를 수 있고, 두책의 구성 차이는 첫째 『救急方』은 인용문헌위주로 증상 치료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서는 내용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둘째로 『救急方』은 인용문헌을 적고 있으나 본서는 인용문헌을 적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서로 다르니 『救急方』과 『諺解救急方』은 별개의 서적임을 알 수 있었다.

其所裁定實稟 神規擇之必精簡而不略又翻以方言使人易曉 書成凡爲卷八爲門一百二十七命曰救急簡易方..하략

을 한가지로 묶기도 했다. 또한 『救急方』 시대에는 중시되지 않았던 구급질환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두책의 내용이 똑같은 경우도 있고,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諺解救急方』에는 치료법이 있으나 『救急方』에는 없는 경우가 있고, 『救急方』에는 있으나 『諺解救急方』에는 없는 경우가 있었다. 『救急方』이 실전된 상황에서 저술된 『諺解救急方』이었지만, 그동안 여러 의서들이 『救急方』의 영향을 받았고, 『諺解救急方』은 『救急方』을 직접 참고로 하지는 않았지만, 『救急方』 이후의 의서들을 통해서 『救急方』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1. 『救急方』의 저술배경은 조선초기 민생안정과 왕권의 확립, 세조의 의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가에서 상비할수 있는 책의 필요성 등으로 세조의 명을 받들어 중앙에서 편찬하여 지방에서 간행하게 되었다.

2. 『救急方』의 편찬연대는 1455년에서 1458년 사이이고, 편저자는 任元灌으로 추정된다.

3. 『救急方』의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한문원문에 바로 이어 언해가 되어 있는데 이는 구급의료를 업의, 유의 뿐 아니라 지역의, 의녀들도 시행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한글을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었다.

② 인용문헌을 밝히고 있는데, 중국 의서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의서들도 골고루 채록되어 있다.

③ 기본적인 형식은 인용문헌을 기재한 후에 증상, 간단한 약물, 침구, 물리치료 등이 혼재되어 있다.

4. 『救急方』의 내용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다음과 같다.

① 救急의 범위는 응급질환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질병의 급격한 변화상황을 포괄하고 있다.

② 『救急方』에서는 구급처치의 자신감을 가지

고 확신하고 있다.

③ 구급처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구급치료후의 예후 판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⑤ 주변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⑥ 구급 치료법에는 1-3가지 이내의 약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처방을 사용하기도 하고, 침, 뜸, 물리요법 주술 등을 사용하고 있다.

5. 『救急方』과 직접적인 연관이 언급되고 있는 의서들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분석하니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救急方』은 위급상황에서 누구라도 쉽게 처치할수 있도록 하는 『鄉藥救急方』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② 세종대 편찬한 『救急方』과 본 논문의 세조대 『救急方』은 완전히 다른 책이나, 세조대 『救急方』은 세종대 『救急方』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수있다.

③ 『救急方』의 내용은 『醫方類聚』에 거의 대부분 똑같이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救急方』은 『醫方類聚』를 교정하는 중에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救急方』이후 『救急簡易方』, 『救急易解方』, 『諺解救急方』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구급의학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1.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서울, 2000
2. 신영일,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서울, 1994, p2
3.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2, 박사학위논문
4.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本草 분석을 통한 朝鮮前期 鄉藥醫學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3
5. 鄭順德, 許浚의 『諺解救急方』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2004, 석사학위논문

6. 南星祐, 『救急方諺解』와 『救急簡易方』의 翻譯,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99
7. 김남경, 『救急方』류 언해서의 국어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5, 박사학위논문
8. 元順玉, 『救急方諺解』의 語彙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1996, 석사학위논문
9. 南星祐, 『救急方諺解』와 『救急簡易方』의 同義語 研究,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집(2004년 2월)
10. 安秉禧, 諺解의 史的 考察, 민족문화 제11집,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1985
11. 金重權, 朝鮮初 醫書習讀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書誌學會, 1998년 6월
12. 안병희,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92
13. 안상우 외 학술정보팀, 『醫方類聚』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 1998
14.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박정균, 신영일, 안상우, 엄석기, 은석민, 이병욱, 차웅석,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15. 김남일·이재동 공편, 『중국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서울, 1997
- 16.
17. 『救急方』, 한글학회
18. 『救急方』, 『韓國醫學大系·1冊』, 여강출판사, 서울, 1994.
19. 허중·임원준. 『구급간이방언해』, 『韓國醫學大系·2冊』, 여강출판사, 서울, 1994.
20. 구급간이방언해, 1982,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1. 권건, 『구급이해방』, 『韓國醫學大系·1冊』, 여강출판사, 서울, 1994.
22. 김안국, 『촌가구급방』, 『韓國醫學大系·1冊』, 여강출판사, 서울, 1994.
23. 『향약구급방』, 『韓國醫學大系·1冊』, 여강출판사, 서울, 1994.
24. 이경화, 『광제비급』
25. 어숙권, 『고사촬요』
26. 許浚, 『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冊』, 여강출판사, 서울, 1994.
27. 許浚, 『諺解救急方』, 목판본
28.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서울, 2001
29. 金信根, 韓國醫學書巧,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87
30.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서울, 1966
31. 향약집성방(상), 대성문화사, 1992
32. 經國大典
33. 두산백과사전
3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http://www.jisik,kiom.re.kr/>>
3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웹서비스, <<http://sillok.history.go.kr/>>